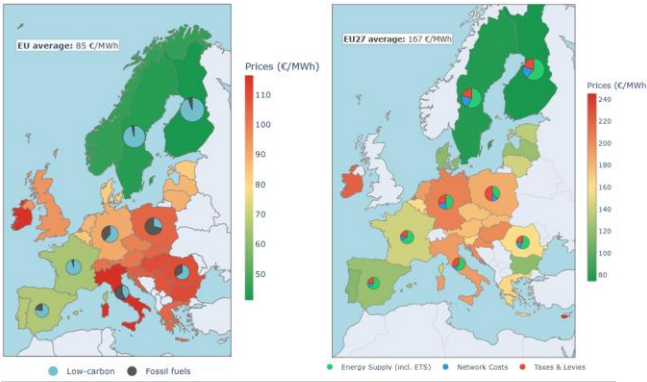


한 발 물러선 미국, 두 발 앞서가는 EU

2026-05-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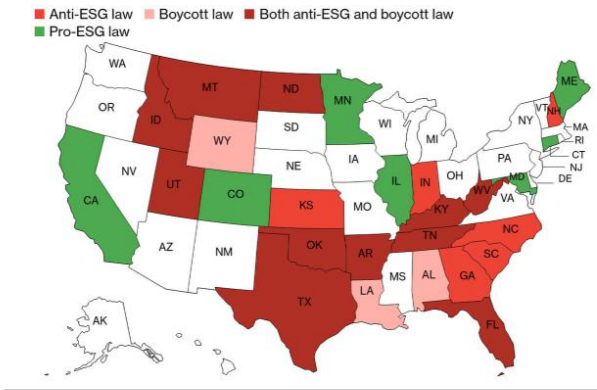
- 5/4 미국 SEC, 예산관리국(OMB)에 'Rescission of Climate-Related Disclosure Rules' 제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기후공시규정 공식 폐기 단계 진입
-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반적인 기후/ESG 규제 관련 흐름 후퇴 움직임 공식화 된 것, 중요성(Materiality) 중심의 회귀 가속화 움직임
- 캘리포니아, 뉴욕 등 주별로 나뉘어진(Patchwork) 규제 부각될 가능성 언급되지만, EU 및 아시아 기준 중요성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
- 반면 EU 집행위는 자산운용사 ESG 보고 의무 면제(ESRS 적용 대상 제외) 개정안 제시, 공개 의견 수렴 진행
- ESG 후퇴 아닌 EU 산업 경쟁력 회복 과정에서 기업별 보고 부담 줄이고 간결/단일화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
- 한편 4월 발표된 AccelerateEU의 구체적 이행안 추가 발표(5/13), 화석연료 의존도 낮추고 재생에너지 전동화 목표는 상향
- 미국은 점점 후퇴, EU는 단순화하며 가속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특징, 글로벌 ESG 무게 중심 미국에서 EU/아시아로 이동할지 주목

EU에너지도매가및 소매가구성 차이 - 청정에너지도매 가격은 이미 저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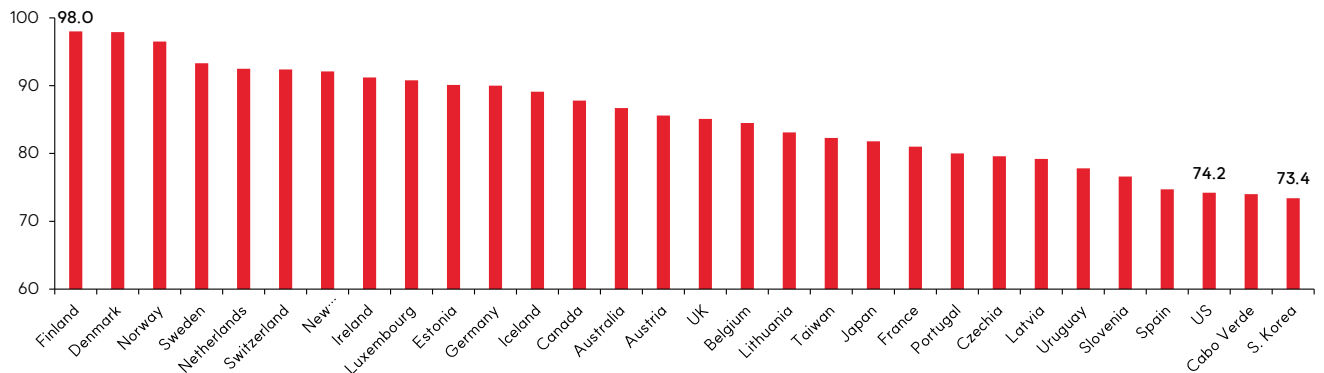
자료: AccelerateEU, SK증권

미국 주별 ESG 관련 입법 현황(2025년 기준)



자료: BloombergNEF, SK증권

국가별 ESG(Governance) 순위



자료: WorldEconomics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인(나승두)은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 분석 담당자는 본인의 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투자판단 근거(6개월기준) 15%이상 > 매수 / -15%~15% > 중립 / -15%미만 > 매도